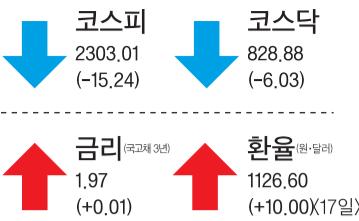




[산업]
삼성전기
전장사업 영토 확대
中에 MLCC 공장 증설
04



비핵화 첫 단추 잘 뀌면… 경협효과 ‘0.8%p+13만개’

<주가 성장률>

<일자리>

J노믹스 北으로 가다

① 다시 무르익는 남북경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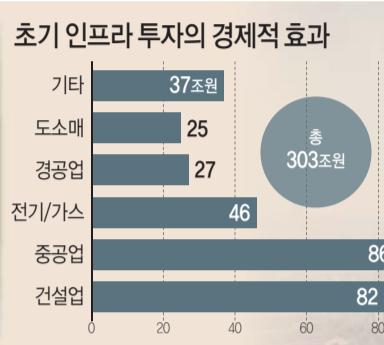
“전 재산을 북한에 투자하겠다.” 북한발(發) 위기가 지속되던 지난 2015년 ‘투자의 귀재’ 짐 로저스가 미 CNN 방송 인터뷰에서 했던 말이다. 로저스는 지난 7월 한국을 방문했을 때도 “한국은 앞으로 10~20년간 세계에서 가장 흥미진진한(exciting) 국가가 될 것”이라며 “세계가 앞으로 몇 년 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한국은 북한 개방과 북한 경제 발전에 따라 덜 영향받지 않을까 싶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9·18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경협 재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어서다. 다만 경협 재개의 전제조건인 북한비핵화를 위한 북-미 대화가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남북경협 사업은 아직 너무 많은 위험(risk)에 둘러싸여 있다”는 불편한 시각이 많다.

◆ 실제 효과 나오기 까지는 시간 걸릴 듯

0.81%포인트, 12만개…

최남석 전북대 교수의 ‘한반도 신경제비전의 경제적 효과’ 연구에 따르면 한반도 내 항구적 비핵화 조치가 마무리돼 향후 1~2년 내 순조롭게 남북 경제통합이 이뤄질 경우 이후 5년간 연평균 0.



자료/국토연구원

남북회담에 경협 관심 ↑
한반도 신경제 탄력 기대
남북 경제 통합 이뤄지면
2024년 생산유발 42.3조
부가가치 10.8억 경제효과

81%포인트의 추가적인 경제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2020~2024년 생산 유발액 42조 3000억원, 부가가치 유발액 10조 8000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창출되고 12만 8000여개의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전망됐다.

예상 대로라면 문재인 정부의 ‘J노믹스’도 한층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 전문가들은 한반도 긴장 완화로 증시·환율 등 주요 시장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완화돼 한국 경제도 새로운 역사의 출발점에 설 것으로 진단한다.

국가 신용등급이 이를 밝혀 줄 것으로 보인다. 남북에 이어 미·북

정상회담까지 성공하면 재평가가 예상된다. 피치는 지난 4월 정상회담에서 “장기간 교착 상태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에 지정학적 리스크 요인”이라며 “여기에는 잠재적 무력충돌 가능성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에 걸친 통일 비용의 상승 가능성이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피치는 “이런 리스크 때문에 한국의 ‘AA-’(안정적) 신용등급이 피치의 국가신용등급 모델의 추산치보다 한 단계 낮다”고 덧붙였다.

이운석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들어선 상황에서 북한 경제 재건과 동북아시아 성장을 견인할 개발사업을 추진하면 성장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위원은 “통일을 위한 염원이란 씨앗이 이제는 남북 경제협력이라는 결실을 볼 차례”라며 “경협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남북 경제 공동체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실제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조동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간한 ‘북한경제리뷰’ 5월호에서 이석 KDI 북한경제연구부장과의 대담을 통해 “경제 재재는 비핵화에 대한 합의 사항이 실행된 뒤에 완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만 최소 1~2년이 걸릴 것이라는 게 그의 전망이다. 조원장은 북한이 경협을 제한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그는 “(북한에) 동시다발적으로 해외 자본이 들어온다고 해도 환영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가가 주도하는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AI 등 성장을 끌어올리는 협력 나올까

남북경협은 어디부터 시작될까. 건설 및 금융업계에 따르면 북한의 각종 인프라 구축에는 천문학적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3면에 계속

/김문호 기자 kmh@metroseoul.co.kr

오늘 남북정상회담 <관련기사 2, 3, 8면>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열리는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을 앞두고 17일 서울도서관에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을 기원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연합뉴스

10년 만에… 휴대폰 신화 저물고 다시 불거진 ‘샌드위치론’

▣ 흔들리는 IT코리아

② 스마트폰

애플, 북미 점유율 35% ‘1위’
삼성 2위 했지만 수의 제자리
中 중저가폰 판매확대 등 압박

“중국은 쫓아오고 일본은 앞서 가는 상황에서 한국은 샌드위치 신세다. 이를 극복하지 않으면 고생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한반도의 위치다.”

2007년 1월, 이건희 삼성 회장은 취임 20주년의 소감을 묻는 질문에 대해 이렇게 대답했다. 확실한 기술 선진국이 되지 못한 상황에서 후발주의의 주적을 받는 느낌을 표현한 ‘샌드위치론’이다.

그런데 최근 업계에서 한국 스마트폰 산업이 이런 샌드위치 상황에 빠진 게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 회장의 말에서 ‘일본’을 ‘미국’으로 대치한다면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애플 아이폰으로 인해 스마트폰 시장



이 본격적으로 열린 후 삼성전자는 2009년 3분기 이후 꾸준히 스마트폰 판매량을 늘렸다. 매 분기 역대 최고 판매량 기록을 경신했고 2012년 1분기 9350만대 휴대전화를 팔아 노키아를 제치고 점유율 25%로 세계 1위에 올랐다.

이런 흐름 속에서 이건희 회장은 지난 2012년 리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12’를 참관한 뒤 “일본은 힘이 좀 빠졌고 중국은 한국을 쫓아오기에는 시간이 좀 걸린다. TV나 갤럭시폰 같은 시장을 선도할 만한 핵심 제품이 몇몇 개 있다”며 “이런 것에 만족하지 말고 더 다양한



아이폰 XS맥스, XS, XR.



애플 샤오미 포코F1 스마트폰.

28.6%로 2위, LG전자는 15.8%로 3위를 기록했다. 수치상으로 본다면 삼성과 LG를 합치면 애플보다 판매량은 높다. 그러나 문제는 이익률이다. 2017년 4분기 애플은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영업이익의 83%를 가져갔고 삼성전자는 12.9%를 차지했으며 LG는 적자를 면치 못했다. 올해도 여전히 애플은 시장상황에 관계없이 꾸준히 80%가 넘는 스마트폰 이익률을 보이고 있지만 삼성의 이익률은 오르지 않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8월 1일 애플과 삼성의 프리미엄폰 가격 전략에서 삼성전자가 실패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중저가폰 시장도 위험하다. 올해 8월 스트래티지 앤리티كس(SA)는 삼성의 중국시장 점유율은 0.8%에 그쳐 존재감을 잃어가고 있고 인도에서는 샤오미에 뒤져 2위에 머물렀다고 밝혔다. 2013년 32.3%에 달했던 삼성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10% 가까이 하락했고 그 자리에 화웨이, 샤오미, 오프 등 중국업체가 진입했다.

5면에 계속

가트너 안술 굽타 책임 연구원은 “삼성은 전 세계적인 스마트폰 수요 감소에, 중국 제조사와의 경쟁 심화 등의 난관에 직면했다”고 분석했다. 유력 시장 조사업체들은 프리미엄 시장에서 애플이 삼성과 격차를 벌리고 있는 가운데 중저가폰 시장에서는 중국 제조업체가 판매량과 점유율을 늘리며 삼성을 압박하고 있다고 관측한다.

2018년 북미시장에서 애플이 34.9%의 점유율로 1위를 차지하고 삼성이

/안병도 기자 catchrod@